

판소리 본향 보성서 서편제소리축제 열린다

14~16일, '판페라 이순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전국 판소리·고수대회 명창부 대상 상금 2천만원 수여

보성군이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9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과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격조 있는 문화행사와 민중의 삶과 애환이 서린 판소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성군은 판소리의 본향으로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음민 선생,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이며, 대한민국 국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행사로 첫날인 14일 오후 3시 판소리 성지에서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전 선생 추모행사가 열리며,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7시부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도립국악단의 '판페라 이순신' 공연이 펼쳐진다. 판페라 '이순신'은 조선수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수군을 크게 이긴 명량해전을 깊이 있게 다룬 판페라(판소리+오페라)형식의 공연이다. 지난 2012년 초연된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명품 공연으로 자리잡았으며, 충무공 이순신이 이끄는 민·관·군이 함께 국난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천녀 순덕과 이나라와의 가슴 아픈 사

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판페라 이순신 공연은 30여명의 국악오케스트라, 60여명의 출연진과 스태프가 참여해 기존 정극에서 볼 수 없었던 웅장함과 장중함으로 관객을 압도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다. 15일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와 김덕수 사물놀이패 축하공연, 기념식, '보성이리랑 바이올린&퍼포먼스 클라보 공연', 관광객과 보성소리꾼이 함께 꾸미는 보성소리 한마당,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예선, 서편제보성소리축제기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6일에는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본선,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역대 대상 수상자 초청 공연이 준비되었으며, 조상현, 성창순, 김일구·김영자, 박애리·팝핀현준 등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와 명창

부 수상자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집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또 '나도 명창' 관광객 보성소리 자랑, 추임새 경연대회, 다문화가족 '아리랑' 부르기 대회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와 장극, 판소리 인형극, 지역예술 단체 공연 등 흥겨운 소리 마당이 준비되었다. 한편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시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며, 고수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보성문화원(061-850-5892)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 차밭 찾은 뉴욕한인회 이용부(오른쪽) 보성군수가 지난 8~9일 보성을 방문한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 보성 방문단 일행을 만나 보성 차밭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이동부 초대 한인 축제인 코리안 페어에 참석해 뉴욕한인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뉴욕한인회는 보성녹차를 제1호 공식 의전용 음료로 지정했다.보성=김용백기자 kyb@

소설 '태백산맥' 초판 발행 30주년

별교 태백산맥문학관 관람객 발길 줄이어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초판 발행(1986년 10월 5일) 30주년을 기념해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보성군에 따르면 소설 태백산맥 속 주무대인 별교읍에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개관한 태백산맥문학관은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아우르는 문학관으로, 누적 관람객수만 52만명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기행 1번지다. 태백산맥 문학관은 조정래 작가의 육필 원고 1만6500여장을 비롯한 작품관련 자료 등 총 159건 719점이 전시돼 있으며, 단 한편의 문학작품을 위해 지어진 국내 최대의 작품전시관이다. 보성군은 소설 태백산맥 필사자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올해 전시관 리모델

링을 통해 필사전시실을 마련하고 필사본 기증자 20명의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며, 작가 흉상 제작 설치와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설 태백산맥 초판 발행 30주년과 더불어 태백산맥문학관은 별교지역의 맛과 멋을 홍보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학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산맥문학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학생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문학탐방 교육도 진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문화관광과(061-850-5207)로 문의하면 된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곡성군 드림스타트 아동 24명 대상 '로봇 과학교실'

곡성군은 "오는 12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로봇 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회 동안 기초교육과 함께 로봇 조립을 통한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직접 로봇을 조립·조작하면서 창의적이고 종합

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집중력을 키우고 있다. 한편 곡성군 드림스타트는 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직업체험'과 '술 체험 프로그램',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이순신 장군처럼...보성 방진관 활쏘기 체험 보성중학교 2학년 학생 60여 명이 최근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의 방진관에서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다. 방진관은 이순신 장군이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의 이름을 딴 교육관으로 구 보성군수의 관사를 리모델링해 올해 3월 개관, 지역주민과 관광객,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진관 충무공 학당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제 교육장으로, 보성의 새로운 역사문화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미혼남녀 '솔로탈출 GOGO' 행사

고흥군은 "오는 20일 과역면 조가비촌에서 직장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솔로탈출 GOGO'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솔로탈출 GOGO 행사는 업무와 야근이 잦은 지역 내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고흥지역 내 직장인 미혼 남녀 30명(남 15명, 여 15명)이 대상이며,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친화와 소통의 시간 및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10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830-5597) 또는 메일(inhye321@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행사 문은 고흥군보건소(061-830-6629) 또는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미혼 남녀의 솔로탈출을 위해 다채로운 만남 행사를 준비했다"며 "따뜻한 겨울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군 '지리산 종주 인증제' 시행

구례군이 오는 2017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앞두고 지리산 종주 인증제를 시작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지리산 종주 인증제는 화엄사~종산리 종주 코스 41.5km 구간 내 관광안내소, 대피소, 탐방안내소 등 7개소에 설치된 인증센터(사진)에서 탐방객이 직접 인증 수첩에 스탬프 도장을 찍으면 군에서 기념메달을 수여하는 종주 인증 프로그램이다. 인증제 참여신청 및 인증수첩 구매는 구례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tour.gurye.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구례군 문화관광과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종주하는 탐방객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탐방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과(061-780-2226~7)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호텔급,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 시세 / 감정가 - 12억
- 매매 - 9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9월 30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